

보도자료

ifefz 인천경제자유구역
Incheon Free Economic Zone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3. 3. 27(월) 14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신성장산업유치과
담당	과장 김연주, 담당 정혜련/성별희(032-453-7374)

체외진단 선도 기업 오상헬스케어 송도에 입주한다

인천경제청, 투자계약 체결...진단분석 연구시설 내년 착공·오는 2026년까지 완공
김진용 청장 “대기업 바이오의약품 주도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산업 구조 다변화 기대”

- 우리나라 체외진단 분야 선도기업의 연구시설이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송도국제도시에 건립된다. 대기업 위주 바이오 의약품 생산이 주를 이루던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산업 구조 다변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7일 송도 G타워에서 김진용 청장과 홍승억 (주)오상헬스케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회사와 송도 내 연구소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오상헬스케어는 송도 7공구 인천테크노파크확대조성단지 Sr-13필지(송도동 178-5번지)의 면적 14,716㎡에 체외진단 분야 연구 및 제조시설을 건립한다. 내년에 착공, 오는 2026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.
- 지난 1996년 설립된 오상헬스케어는 분자진단, 면역진단, 생화학진단 등 체외진단 전문 기업이다.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 제품을 공급하고 대부분의 매출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통해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. 이 회사의 코로나 진단 키트는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(FDA)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바 있으며, 국내 기업 중 유일하

게 혁신 진단제품 개발 및 공급을 지원하는 스위스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인 FIND(Foundation for Innovative New Diagnostics)의 저개발국가 공급 프로젝트에서 최종 업체로 선정되는 등 최고 품질의 제품 공급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.

- 이번 협약은 오상헬스케어가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거점으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를 선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. 체외진단이라는 한 우물을 파면서 쌓은 기술력을 통해 이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(R&D) 역량을 갖추고 있고 현재 다양한 국가의 정부 산하 연구기관·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오상헬스케어가 송도에 입주기로 함에 따라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.
- 홍승억 오상헬스케어 대표는 “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”며 “오상헬스케어가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송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- 김진용 청장은 “앞으로 오상헬스케어가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적극 협력하겠다”며 “입주기업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송도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도약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달라”고 당부했다.